

石谷 李圭峻의 『石谷散稿』 번역 연구(I)

한국한의학연구원¹

권오민¹ · 박상영¹ · 안상영¹ · 한창현¹ · 안상우¹ *

A Study on The 『Seokgoksango(石谷散稿)』 of Lee Gyujun(李圭峻)(I)

Kwon Oh-min¹ · Park Sang-young¹ · Ahn Sang-young¹ · Han Chang-huyn¹ · Ahn Sang-woo¹ *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article looks into Lee Gyujun(李圭峻)'s life course, Confucian thoughts, and philosophical ideas on the Medicine of Boosting Yang by translating selectively his 『Seokgoksango(石谷散稿)』. Translating his works is a pre-requisit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boosting-yang theory in the historical landscape of Korean medicine, not just to comprehend the Medicine of Boosting Yang.

First, it is found through the translation that a previous version of 『Seokgoksango』 had been probably printed before its existing version 1981. Secondly, there are numerous resistants to the Japanese ruling of Korea among his friendship. Thirdly, his academical root came from the Gihohakpa(畿湖學派) – the Giho school of Korean Seongli Confucianism[朝鮮性理學]. Its genealogy in Gyeongsang(慶尙) province is as follows: Lee Yi(李珥), Song Siyeol(宋時烈), Hong Jikpil(洪直弼), Seo Changyu(徐贊奎) and Lee Gyujun(李圭峻), and last, he kept contact with the Toegyehakpa(退溪學派), the Toegye school of Korean Seongli Confucianism, even though his academic root was closely linked to the Giho school. If the entire parts of 『Seokgoksango』 is translated, it will serve as invaluable historical document to understand a medical unfolding around the 20th century in Korea.

Key Words : Lee Gyujun(李圭峻), Gihohakpa(畿湖學派), Seokgoksango(石谷散稿), medical theory of boosting yang(扶陽論), Dong-uibogam(東醫寶鑑)

I. 연구목적

石谷 李圭峻과 東武 李濟馬는 각각 四象體質醫學과 扶陽論이라는 독창적 학설을 제시하여 20세기 전

반에 걸쳐 한국의학의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 특히 최근에는 의학이론적 측면에서의 『東醫寶鑑』의 의학적 성취와 근대기 의학이론의 전개·발달, 특히 이제마의 사상체질학과 이규준의 부양론의 제창을 일관된 의학이론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²⁾. 이는 그간 한국의학

* 교신저자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E-Mail : answer@kiom.re.kr Tel : 042)868-9442,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김기욱 외 16인. 한의학통사. 고양. 2006. pp.400-401.

2) 고병희.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

사에서 의학발달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의학적 성취를 고립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 시간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일관된 의학사 서술을 위해선 의학사적 사실들에 대한 자세한 사료 및 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이다. 그간 사상체질의학과 이체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이제마의 철학적 배경과 의학이론의 제창과정은 자세히 밝혀져 있다. 반면 이규준과 부양의학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출발단계에 있다. 80년대 이후 신진 한의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이규준의 扶陽醫學에 대한 연구가 상당 정도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상한의사들이 부양의학이론에 근거하여 의학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규준 부양의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그의 유학 철학과 세계관에 대하여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규준의 생애와 부양의학론 연구에 필수적인 그의 문집 『石谷散稿』에 대한 방대한 번역 결과물을 두 번에 나누어 실고, 번역과정에서 발견된 이규준과 부양의학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번역과정 중 발견된 사실들은 향후 이규준의 생애와 가계, 학맥, 철학 및 의학적 견해 등 이규준과 부양의학 전반에 걸칠 중요한 사료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는 이규준의 부양의학 이해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의 고유한 특성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발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석곡 이규준의 생애와 저작

이규준은 조선말 1855년(哲宗 6년) 11월 10일 경상북도 迎日郡 東海面 林谷里에서 출생하였으며, 일

단. 2009. pp.28-40.

권오민. 동의보감과 부양의학.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41-50.

본식민지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23년 10월 10일에 향년 69 세로 졸하였다. 최근까지 가정이 매우 빈한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건물 7채와 방앗간으로 가택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 부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石谷書堂'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노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조부가 戶曹參判을 지낸 것으로 보아 유년기의 교육적 여건도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經學 관련 저서로는 『六經』인 『毛詩』, 『尙書』, 『周易』, 『春秋』, 『周禮』, 『儀禮』에 注疏를 단 것이 있는데, 총 26책이다. 주요 목록을 보자면 『經髓三篇』 1책, 『典禮』 1책, 『論語』 3책, 『孝經』 1책, 『唐宋古詩』 1책, 『後千字』 1책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원문, 주석과 서문 등을 자신의 견해에 따라 편집한 것들로, 사이사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경학서는 『경수삼편』이다. 이 책은 『大學』, 『中庸』, 『禮運』에 의견을 첨부하여 편집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규준과 양명학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신의 氣一元論과 心氣哲學을 서술한 책으로는 『石谷心書』 1책이 있다. 그의 유학은 당시의 영남지역의 주류인 퇴계학맥에서 벗어나 氣哲學과 陽明學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는 그가 부양의학을 제창하는데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저술은 『東醫寶鑑』을 자신의 부양의학에 맞게 편집하고 간간이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 『醫鑑重磨』 3책, 『內經』의 문장을 자신의 부양의학론에 맞게 수정하여 편집한 『素問大要』, 그리고 『本草』 上下 2책이 있다. 이 외 서양의 역사와 문물에 대해 논한 『浦上奇聞』 1책과 수학에 관한 『九章要訣』 1책이 있다.

본고의 저본인 『석곡산고』는 이규준 사후 60년 정도 지난 1981년에 제자와 유족이 참가하여 경주사람 孫晉圭에 의해 간행되었다. 현재 경인문화사에서 1999년에 출간한 『한국역대문집총서』에 『石谷先生文集』이란 서명으로 영인되어 전한다.

발간사를 쓴 손진규는 이규준의 제자인 草廬 鄭

萬載의 제자이다. 이규준의 재진제자인 셈이다. 손진규는 戊申年(1968) 봄에 崔鍾洛이 이규준의 글을 필사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이규준의 손자 李雨乙의 동의를 얻어 1981년에 간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손진규가 최종락을 ‘崔君’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보다 나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石齋 徐丙五, 문인 정만재의 輓詞와 祭文, 그리고 昌山 曹圭喆의 墓碣銘이 붙어 있다.

III. 연구방법

『석곡산고』의 번역 결과는 글자 수 약 17만자, 한자 수 약 3만 8천자, 원고지 약 550여 매 정도에 이른다. 한 번에 실기에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본고에서는 전반부 - 아래 목차에서 실선이 그려진 윗부분 - 중에서 이규준의 생애와 철학, 의학의 파악에 중용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발췌하여 고찰분석하였다. 특히 이규준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였다.

IV. 석곡산고의 구성

『석곡산고』의 구성을 글의 성격을 중심으로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發刊辭(손진규)
2. 目次
3. 石谷書堂記: 1899(45세) 9월 10일 작성
4. 時文類: 石谷書齋原韻 ~ 大邱觀風樓會飲
5. 書類: 上叅贊郭俊宇先生書 ~ 祭老儒文
6. 記行文類: 八伽倻山記 ~ 湖上再遊日記
7. 附錄: 輓詞, 祭文, 墓碣銘

‘發刊辭’에는 그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규준의 주요 저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보인다. ‘石谷書堂記’는 석곡서당의 창건과정을 자세히 보여

준다. 석곡서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석곡심서』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石谷書堂學規’에 자세히 나온다. 따라서 이 석곡서당기와 석곡서당학규를 종합하고, 석곡 생가와 후손의 증언조사를 더하면 이규준이 석곡서당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時文과 書類에서는 이규준의 교류인물과 사승관계, 그리고 철학적 성향 등에 대한 자세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記行文에는 시문과 서류에서 볼 수 있는 자료에 더하여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근대 문물에 대한 감상,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乾薑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실려 있어 本草學 연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규준의 죽음에 즈음하여 서병오와 제자 정만재가 쓴 만사, 정만재의 제문, 그리고 1974년에 조규철이 쓴 이규준의 묘갈명이 덧붙여져 있다. 목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答李朗山【屋】書’과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 사이에 ‘病錄’ 절(아래 목차에서 밑줄이 쳐진 부분)이 『석곡산고』 목차부분에는 누락되어 있다.

■ 석곡산고의 목차 구성

發刊辭	一二枚 ³⁾
目次	二八
石谷書堂記	九
石谷書齋原韻	十
附芝村李圭永詩	十枚
附蘭澗李圭亨詩	十
詩契日因行鄉飲酒禮	十
附梧岡羅鳳綸詩	十一
附芝村李圭永詩	十一
二月朔朝吟	十一
花煎吟	十一
伏日詩契吟	十一
九日詩契吟	十二
早春邊海	十二
秋日東行	十二枚

3) 이 부분은 『석곡산고』 영인본(이규준 저, 서울, 경인문화사, 1999)의 원본 쪽수이다.

初夏訪鰲山	十二	次烈女行韻	二十一
林氏亭夏日會吟	十二	次金司果晬宴韻	二十一枚
郭氏庄上	十三	次鄭五衛將晬宴韻	"
宿三湖齋	"	次鄭叅判晬朝韻	"
逢杞溪宗人仲純	"	次厚山晬韻	二十二
與仲純暮訪日月齋	"	賀權和中萱堂晬宴	"
同松阜宿九龍浦	"	輓都事徐先生	"
阻雨三政洞	十四	輓大岩孫先生	"
止石屏館	"	輓明坡族丈	"
石屏齋藝苑宴	十四枚	輓金老儒【二首】	二十三
憇大川松壇	"	輓金查兄鵬老	"
鼎足齋贈厚山	"	輓金司果【二首】	二十三枚
附厚山詩	十五	輓金進士然翁返樞宣城家山	"
宿明月庵	"	李學泰謝林公珍公珍要余答酬	"
還到三政齋	"		
阻雨	"		二十四
同鄭順八遊鄧山人庄上	"	附李學泰原韻	"
送金溶洙金基洙歸省 十六		輓琴坡許老丈	"
曲江絳別	"	發達城向湖上與崔清道丈共賦	"
中陽齋上巳飲	十六枚		"
敬次廣南齋韻	"	電線【道中口呼】	"
敬次兩岩亭韻	"	過華嶺, 俗離山, 過壯岩	二十五
次鄭致錫龜岩韻	十七	歸路吟	"
慮訥齋庄上	"	曲江賦餞	"
附訥齋詩	"	登望洋臺古墟	二十六枚
次大訥齋風雷堂韻	"	過召公嶺	"
怡怡堂	"	登竹西樓敬次栗谷先生板上韻	"
斯斯亭, 次次軒, 敬止堂, 如在閣	十八		"
		附栗谷原韻	"
與曹仲謹文章之遊大岩山亭	"	留半亭	二十七
附深齋曹仲謹詩	十八枚	登鏡浦臺	"
翌日阻雨	"	金剛山【二律二絕】	"
附深齋詩	十九	登國師峰	二十八
同朴國斌李世卿講論石洞齋	"	出宿長承洞安氏庄	"
附道山朴國斌詩	"	行路吟	"
附敬山李世卿詩	"	同厚山南遊滯雨月城	二十八枚
又吟附道山詩	"	附厚山詩	"
值雨附敬山詩	二十	八孔岩洞次居然亭韻	"
閱並浩著菊花論要余品評	"	孔岩訪主人不遇	二十九

過清道山東	”
金陵次燕子樓詩	”
過通度寺鷺栖山	”
遊京有感【二絶】	”
登雞籠山【二首】	”
登赤裳山	三十
還至達城吟【二首】	三十枚
訪密陽盧訥齋	”
追輓心石齋兄弟	三十一
與南漁金琮鉉飲餞	”
附南漁詩	”
大邱觀風樓會飲	”
上叅贊郭侁宇先生書	三二三四
與朴淵祚書	三四三五
答李朗山【壘】書	三五三六
病錄	
與嶠南教育會員朴品東李根中等	三七四一
祭克齋李先生【公攷】文	四二四三
祭徐都事臨齋先生文	四三四四
<hr/>	
祭大岩孫先生文	四四
祭明坡族丈文	四四四五
祭徐進士子源文	四五四六
祭從弟圭脩文	四六四七
祭聘叔母趙氏文	四七四八
祭聘丈文【代家兒泊鍾作】	四八
祭查丈文【代人作】	四八四九
祭老儒文【代人作】	四九
八伽儂山記	五五五二
西遊路程記	五二五五
京都志	五五五八
金剛日記	五八六五
湖遊日記	六五七三
湖上再遊日記	七三七九
輓詩 祭文 碣銘	八〇八四

V. 번역과 고찰

○ 發刊辭

舊韓末葉之際⁴⁾ 人稱東海生夫子라하니 卽李石谷先生也라 先生之學을 得聞於吾師鄭草廬公而鄭公則以先生之高弟로 篤守師說하야 庶幾前茅吾黨矣러니 負抱未張에 災殃先至하니 時에公年이三十七이요 小子年이十八이라 櫟摧燭滅에 良訓을何得고 惟其兩公尊慕之心이 浹於肝肺러니 戊申之春에 偶得見先生散稿於崔鍾洛家하니 洛曰先生이素不留念於集文하야 大概多搬之者而或有未搬之者가 置於几案故로 一年門下에 瞻集而藏焉하니 君其一覽이어다 晋圭曰大哉라石谷之門墻也여 吾聞先生은以不世出之大才大器로 博覽古今之群書하야 以犧氏八卦로 認天地之動靜하고 以孔門六藝로 爲士子之標準하야 行已誨人에 一定而無惑하고 矯枉回倒에 百折而不屈이라하더니 今觀此稿하니 詩中에含道氣하고 道中에成文章하야 足爲吾儒之指南也라 我亦瞻之하야 乘時反復而欽慕先生之德業이러니 噫라 年輪이屢轉에 人事多舛이라 先生之門에 高足이盡亡하고 崔友去而吾年도亦望稀하니 先生之詩를 復誰與而共吟고 先生이嘗語文章之弊曰或揚名於楣上之木하고 或納諛於墓中之人하니 是는有無益於世道하고 無無損於生民이라하니 是亦前人未發之言而獎實學之明證也라 於乎라 先生之功蹟은 已顯於詩書易三經之刷管하고 先生之精神은 亦著於心書奇聞兩書之公世하고 又有儀禮訂疑와春秋讀法과經髓三篇과醫鑑重磨等之名作하니 餘稿之刊與不刊이 奚足有輕重於先生哉아 雖然이나 玉埋於塵하고 月翳於雲은 人之所傷也라 余於是稿也에 豈不有愛之敬之之心乎아 茲敢就印而頒之하니 倘未有瑕於先生之大義也歟아 先生之孫雨乙이亦同意於此役云爾라 先生易篋後五十九年辛酉初夏에 後學慶州孫晋圭謹識

구한(舊韓) 말엽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자(孔子)같은 분이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그 분은 바로 석

4) 발간사의懸吐는 작성 당시 저자 자신의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실는다.

곡(石谷) 이(李) 선생이다. 이 선생의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승 초려(草廬) 정(鄭) 선생께 들을 수 있었다. 정 선생은 바로 이 선생의 뛰어난 제자로서 스승의 학설을 독실하게 지켜 우리 학파의 선봉장이나 다름없는 분이셨는데, 지닌 뜻을 미처 펼치지 못한 채 재앙이 닥쳐 돌아가셨으니, 당시 선생의 나이 37세였고 나는 18세였다. 대들보가 부러지고 촛불이 꺼진 것과 같으니 훌륭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두 분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온 몸에 가득했는데, 무신년(1968) 봄에 우연히 최종락(崔鍾洛)의 집에서 선생의 원고 일부를 볼 수 있었다. 최종락이, “선생께서는 평소에 글을 모아두려는 뜻이 없어서 대부분 없애버리셨습니다. 미처 없애지 못한 글이 책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문하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두 베껴 보관하고 있으니, 당신께서 한 번 보십시오.” 했다. 내가, “훌륭하구나, 석곡 선생의 학단이여! 내 들으니, 선생께서는 불세출의 큰 제주와 큰 도량으로 고금의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하여 복희씨(伏羲氏)의 팔괘(八卦)로 우주의 동정(動靜)을 알아채고, 공자 학단의 육예(六藝)로 선비의 표준을 삼으셨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몸가짐과 타인의 교육에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의혹이 없었고, 잘못을 바로잡고 만회하는 일에 있어 수없이 꺾여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지금 남겨진 원고를 보니 시(詩)는 그 속에 도(道)의 기운을 품고, 도는 그 속에 문장을 이루어 우리 유학자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고, 나도 베껴 써서 틈나는 대로 반복해 읽으면서 선생의 덕행과 사업을 흠모하곤 하였다. 아! 세월이 이리저리 흘러가면서 인사궐에)도 대부분 잘못 되어, 선생의 문하에 있던 뛰어난 제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나의 벗 **척도**도 떠나고 나 또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선생의 시를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읊을 수 있겠는가.

5) 복희씨(伏羲氏)의 팔괘: 『주역』을 가리킨다.

6) 공자 학단의 육예(六藝): 고대에 학생을 교육하는 여섯 과목으로 예의·음악·활쏘기·수레몰아·글쓰기·셈하기[禮樂射御書數]를 가리키거나 유가(儒家)의 육경(六經), 즉 『예경(禮經)』, 『악경(樂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역경(易經)』, 『춘추(春秋)』인데,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킨다.

선생은 항상 문장의 폐단에 대해 “누구는 문설주위의 나무에 이름을 드날리고, 누구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한다. 이것은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지 않고 백성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다.” 하였다. 이 또한 이전 선배 학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말씀으로 실학(實學)을 장려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아! 선생의 공적은 이미 산정(刪定)한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에 환히 드러나고, 선생의 정신도 세상에 공표한 『석곡심서』(石谷心書), 『포상기문(浦上奇聞)』 두 책에 나타난다. 또, 『의례정의(儀禮訂疑)』, 『춘추독법(春秋讀法)』, 『경수(經髓)』 3편, 『의감중마(醫鑑重磨)』라는 훌륭한 저술이 있으니, 남겨진 원고가 간행된다고 선생을 더 높이고 간행되지 않는다고 선생을 더 낮추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나 옥이 흙속에 묻혀있거나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기 마련이니, 이 원고에 대해 내가 어찌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이에 감히 인쇄하여 반포하니 혹시라도 선생이 지녔던 큰 의리에 누가 되거나 않을지 모르겠다. 선생의 손자 우을(雨乙)⁷⁾도 문집 간행하는 일에 동의하였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 59년이 되는 신유년(1981) 초여름에 후학 경주(慶州) 사람 손진규(孫晉圭)가 삼가 쓰다.

■ 고찰

그간 이규준 저서들에 대한 서명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각 저서의 성격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가 없었으나 손진규는 간행사에서 각 저서의 성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규준 원고 수습과 『석곡산고』의 발간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金斗鍾의 『한국의학사⁸⁾』는 1954년 상·중세편의 자서와 함께 1955년에 출간되었고, 1966년에 전권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규준의 저서를 나열하면서 “『석곡산고』 2책이 세상에 전하여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김두중의 서술이 틀리지 않

7) 우을(雨乙): 이규준의 장자 泊鍾의 아들, 즉 이규준의 손자이다.

8) 김두중 저.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463.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의 저본으로 사용된 『석곡산고』(1981년 간) 이전에 이미 상하 2책으로 이루어진 『석곡산고』가 출간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최소한 『한국의학사』의 전권이 출간된 해인 1966년 이전에 이미 『석곡산고』가 존재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981년본 『석곡산고』와는 전혀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진, 상하 2책의 다른 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발간사에서 손진규는 1968년 최종락의 집에서 이규준 글의 필사본을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鼎足齋贈厚山

정족재(鼎足齋)에서 후산(厚山)에게 주다

一生咀嚼做何功	평생 글 읽더니 무슨 공적 이루었나
鬢髮居然半此中	반 넘어 귀밑머리 뚜렷이 세었네
簫鼓未看虞夏韻	풍악 소리 우하(虞夏) ⁹⁾ 곡조 아닌데
衣冠空惹漢唐風	차림새는 공연히 한당(漢唐) ¹⁰⁾ 풍습 따르네
千年鰲骨猶含碧	천년의 자라 뼈 ¹¹⁾ , 푸르름 머금고
百丈巒燈自放紅	백 길 오랑캐 등불, 붉음을 쏘아내네
大地當今皆鳥跡	대지는 지금 온통 새 발자국 ¹²⁾
滄洲愛汝一漁翁	창주(滄洲) ¹³⁾ 는 고기잡는 늙

9) 우하(虞夏):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이 다스리던 왕도정치 시대.
 10) 한당(漢唐): 중국 한나라와 당나라로, 문물과 예의가 갖추어진 시대.
 11) 자라 뼈: 자라는 동해에서 삼신산(三神山)을 등에 지고 있다는 여섯 마리의 큰 자라, 즉 육오(六鰲)를 가리킨다.
 12) 새 발자국: 요(堯)임금 때에 홍수가 나서 들짐승과 날짐승이 사람 사는 곳에 가득했다. 여기서는 외세(外勢)가 조선에 들어온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13) 창주(滄洲): 은사(隱士)가 거처하는 물가로, 통상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이다.

은 그대 사랑하네

○ 附厚山詩

부기(附記)-후산(厚山)의 시

隱几長年一幅巾	오랜 세월 폭건 하나 쓰고 안석에 기대 있는
先生見道不憂貧	선생은 도(道)만 볼 뿐, 가난 걱정 않았네
忘機鷗鷺時相近	기심(機心) 잊으면 물새 때로 가까이 다가오고
善御蟾蜍亦漸馴	잘 다스리면 두꺼비 또한 점차 길들여지지
嶺上白雲祇樂我	봉우리 위 구름만 나를 즐겁게 하고
川心明月許同人	강 가운데 밝은 달만 벗과 함께 감상하지
十日聯衿詩興足	함께 한 열흘 동안 시흥(詩興)이 많았는데
明朝前路別懷新	내일 아침 떠나는 길에 이별의 회포 새롭겠지

■ 분석

강동욱¹⁴⁾의 연구에 의하면, 厚山 李道復은 1862년(철종 13년)에 단성현에서 태어났다. 이도복의 字는 陽來이고 厚山은 그의 號이며, 본관은 星州이다. 1905년 心石 宋秉珣과 함께 尤庵 宋時烈의 9대손인 항일지사 淵齋 宋秉璿의 『淵齋集』을 간행하였다. 한일합방에 항의하여 자결한 송병선에 대한 동정적인 언급이 『석곡산고』에 실려 있다. 『연재집』 간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도복은 영남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畿湖學脈의 본류를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남지역에서 그의 학문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도복은 기호계열의 송병선과 勉庵 崔益鉉에게

14) 경남일보의 '강동욱 기자의 남문화사랑방'에 의거함 [cited 2009 July 12]: Available from URL: <http://kdo.gnnews.co.kr/>
 강동욱은 심재 조공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남일보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수학하였고 良齋 田愚와도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진하여 지고 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도복의 경우와 같은 이유가, 이규준이 경상도에 거주하면서도 기호계열 학자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유학적으로 독특한 학풍을 세웠고 상당수의 저술도 정식으로 출간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규준에 대한 유학적 연구가 미진한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雲樹兩相知
物外元無事
人間又此時
구나
淹留忘歸去
不但重交期
니지

구름과 나무¹⁶⁾, 서로 잘 알지
사물 밖에는 원래 일 없는데
인간 세상 또 이러한 때 만났

오래 머물며 돌아갈 줄 모르니
교분을 중시하기 때문만은 아

○ 與曹仲謹【兢燮】文章之【樸】
遊大岩山亭

조중근(曹仲謹)【이름은 궁섭(兢燮)이다】문장지(文章之)【이름은 박(樸)이다】와 더불어 대암산(大岩山) 정자에서 노닐다

翡翠南江上 鯤魚北海陲 있네	물총새는 남쪽 강가에 있고 곤어(鯤魚)는 북쪽 바닷가에 있네
頂頭今始合 名字舊相知 大道迷長夜 해졌고	산 정상에서 이제야 만나니 성함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 큰 도리는 기나긴 밤이라 희미 해졌고
良弓待幾時 려야 하나	좋은 활은 얼마의 시간을 기다 려야 하나
歛光從實地 중사해	빛을 거두어 실질적인 학문에 중사해
無負歲寒期 았구나	세한(歲寒)의 뜻 ¹⁵⁾ 어기지 않 았구나

○ 附深齋曹仲謹詩

부기(附記)-심재(深齋) 조중근의 시

古木蒼藤內 柴門茅屋陲 風烟一長望	고목에 등나무 넝쿨 우거진 곳 사립문 초가집 근처 바람에 날리는 이내 한참 바라
-------------------------	--

보고

15) 세한(歲寒)의 뜻: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뎌내는 절조(節操)를 말한다. 『논어』「자한(子罕)」에서 공자께서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들을 알 수 있는 것이다[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했다.

■ 고찰

이규준과 함께, ‘與曹仲謹【兢燮】文章之【樸】遊大岩山亭’과 ‘附深齋曹仲謹詩’에 등장하는 曹兢燮과 文永樸은 당대 경상좌도와 우도에서 유명했던 근대 유학자이다. 조궁섭은 당대에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학자였으며 문영박은 항일적 태도가 두드러진 애국지사이다. 공통점은 두 인물이 모두 항일 행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이규준의 생애에 대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표적 항일지사 淵齋 宋秉璿에 대한 이규준의 만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규준의 교유인물 중 상당수가 항일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송병선은 송시열의 9대손으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하였다. 항일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학문적으로 조궁섭이心を ‘理氣之合’으로 주장한 점은 이규준의 心論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학문적 태도도 유사하였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규준이 시에서 조궁섭과 문영박을 부를 때 號가 아닌 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면서 이규준이 20여년 선배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궁섭은 1873(고종1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일제하 1933년에 61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16) 구름과 나무: 친구 간에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함을 말한다. 두보(杜甫)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에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요,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이네. 어느 때나 한 동이 술을 두고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글을 논할까[渭北春木樹 江東日暮雲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 했다.

본관은 昌寧이고 深齋는 호이며, 仲謹은 자이다. 17세 때에 당시 영남의 대표적 학자 郭鍾錫을 찾아가 태극·성리에 관해 토론하였을 만큼 천재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곽중석을 스승으로 모셨다. 23세에 『南冥集』 重刊 사업에 참가하기도 할 만큼 일찍부터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문명박과 교류가 활발하여 1915년에 는 세에 漢陽開城平壤중국 안시성 등지를 여행하였다. 고종이 사망하였을 때 항복한 임금의 상복을 입을 수 없다고 전할 만큼 항일적 성향을 보였으며, 항일 행적으로 인해 구류를 당한 적도 있다. 마음을 理나 氣 하나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마음을 理와 氣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규준의 心論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준다.

문명박은 1880(고종 17)년에 출생하여 1930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이다. 자는 章之이고 壽峯은 그의 호이다. 일명 ‘樸’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명박의 간찰에는 자신을 박으로 칭한 것도 있다¹⁷⁾. 경상북도 달성 출신이며 영남을 기반으로 한 항일 유림인사이었다. 문씨 가문은 문익점의 후손으로 50만평의 토지와 만석꾼에 가까운 막강한 부를 이루고 있었다. 1919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전국 각지를 내왕하면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가 사망했을 때 밀사를 파견하여 조문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¹⁸⁾. 그는 당시 영남 지방의 유학자로서 漢書만 1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仁壽文庫目錄을 펴내는 등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는데 현재도 달성군 화원면 仁興村의 壽峯精舍에는 萬卷堂이라는 서고가 남아 있다¹⁹⁾. 이규준이 조공섭이나 문명박과 폭넓은 교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도 대표적 항일인사이다.

17) 시인사 편집부 편. 독립운동가의 서한집. 시인사. 1983. pp.128-129[cited 2009 Jun 12]: Available from: URL: http://www.i815.or.kr/media_data/data_chong/48.pdf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cited 2009 Jun 13]: Available from URL: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40805>
 19) 대구지방보훈청[cited 2009 Jun 23]: Available from: URL: <http://www.cafe.naver.com/dgmpva/1446>

○ 同朴國斌【載憲】李世卿【炳國】講論石洞齋

박국빈(朴國斌)【이름은 재헌(載憲)이다】, 이세경(李世卿)【이름은 병국(炳國)이다】과 함께 석동齋(石洞齋)에서 강론하다

聖人經訓至高深	성인의 바른 교훈, 더할 나위 없이 높고 깊으니
千載悠悠幾士林	아득한 천년 동안 선비가 얼마였는가
秋月偏添寒水色	가을 달은 유독, 차가운 강에 만 떨어지는데
春風誰識浴沂心	봄바람 쇄며 기수(沂水)에서 목욕하는 마음 ²⁰⁾ 누가 알라
傳辭便做書空字	전하는 말은 곧장 허공에 쓰는 글자가 되고 ²¹⁾
明筮專從擊壤吟	명확한 점괘는 오로지 격양(擊壤) 노래 ²²⁾ 뿐이네
獨有丹邱豪傑客	단구(丹邱)의 호걸스런 나그네만이
德言能向象中尋	【寧海別名曰丹邱】 형상 속에서 훌륭한 말을 찾을 수 있지 【영해(寧海)의 별명이 단구(丹邱)이다】

20) 봄바람 ... 마음 : 곧바로 천지 만물과 함께 흘러 가슴 속에 한가롭고 자연스러움을 말한다. 『논어』「선진(先進)」에 공자께서 자로(子路)-증석(曾皙)-염유(冉有)-공서화(公西華)에게 각자의 뜻을 말해 보라고 하자, 증석이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冠)을 쓴 어른 5,6명과 동자(童子) 6,7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쇄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공자께서 “아!” 감탄하시며 “나는 점(點)을 허여(許與)한다.” 하셨다.

21) 허공에 ... 되고: 의미 없는 말이라는 뜻이다. 진(晉)나라 은호(殷浩)가 계명(除名)되어 평민으로 전락한 뒤에 하루 종일 공중에다 뭐가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래 엿보니 바로 ‘돌돌괴사(咄咄怪事)’라는 네 글자였다 한다(『진서(晉書)』「은호전(殷浩傳)」).

22) 격양(擊壤) 노래: 태평성대의 노래를 말한다. 요(堯)임금 때 어느 노인이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내 우를 파서 물 마시고 내 밭 갈아서 밥 먹으니, 임금의 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라[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 했다.

○ 附道山朴國斌詩

부기(附記)-도산(道山) 박국빈의 시

石谷茅廬似海深 석곡(石谷)의 초가집, 깊은 바다 같아
 牢籠千古列瓊林 천고 세월 가두어 아름다운 숲 늘어섰구나
 抽開妙鍵談河洛 오묘한 빗장 열어 하도낙서(河圖洛書)²³ 이야기하교
 商確玄源話性心 진리의 근원 헤아려 본성과 마음 말하네
 揖讓庭中觀舊禮 뜰에서 공손히 인사하는 사이 바른 옛 예식 보고
 峨洋絃上聽高吟 거문고 위 아양곡(峨洋曲)²⁴에서 수준 높은 음악 듣네
 茲遊快償平生志 이번 유람에서 평소의 뜻 통쾌히 보상받으니
 勝似江淮子長壽 강회(江淮) 유람한 자장(子長)²⁵보다 낫구나

○ 附敬山李世卿詩

23) 하도낙서(河圖洛書): 하도는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 8괘에 원용되었고, 낙서는 하우씨(夏禹氏)의 9년 치수(治水)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구(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글로서 『서경』 중의 홍범 구주(洪範九疇)에 원용되었다.
 24) 아양곡(峨洋曲): 거문고의 명수 백아(伯牙)가 탔던 악곡(樂曲)이다.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백아는 거문고를 잘 탔고, 종자기(鍾子期)는 소리를 잘 들었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가 말하기를, ‘종구나! 아아(峨峨)하기가 태산(泰山)과 같구나.’ 하고, 뜻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가 말하기를, ‘종구나! 양양(洋洋)하기가 강하(江河)와 같구나.’ 했다. 그 뒤에 종자가 죽자 백아는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했다.
 25) 자장(子長): 『사기(史記)』를 지은 한(漢) 태사령(太史令) 사마천(司馬遷)의 자(字)이다. 사마천은 경제(景帝) 연간에 용문(龍門)에서 태어나 10여 세에 고문(古文)을 다 통하고, 20여 세에는 천하를 유람(遊覽)하고자 하여 남으로 강회(江淮), 회계(會稽), 우혈(禹穴), 구의(九疑), 원상(沅湘) 등지를 유람하고, 북으로 문수(汶水), 사수(泗水)를 건너 제로(齊魯)의 지역에서 강학(講學)을 하다가 양초(梁楚) 지역을 거쳐서 돌아왔다 한다(『사기(史記)』136).

부기(附記)-경산(敬山) 이세경의 시

迎鳥東坵石山深 영오(迎鳥)²⁶ 동쪽 석산(石山)은 깊은데
 高士幽居老竹林 고사(高士)는 고요히 오랜 대숲에 살고 있네
 河洛圖書開蘊旨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깊은 뜻 열고
 天人性命透初心 천명(天命)과 인성(人性)의 초심 꿰뚫었지
 三宵討論多新得 삼일 밤 토론하여 새로 터득한 것이 많고
 一幅唱酬羞拙吟 수창(酬唱)하는 자리 부족한 내 시가 부끄럽네
 揖讓同堂行飲酒 마루에서 함께 공손히 인사하고 음주례를 행하니
 喜看儀禮更推尋 의례(儀禮)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기쁘기만 하네

○ 又吟

또 노래하다

狂狷爲疴合受針 발광(發狂)이 병이 되어 침을 맞아야만 하니
 陳方靡效病還添 처방을 쓰나 효과 없이 병만 더 심해졌네
 思深發憤常忘食 생각 깊어 단단히 마음먹어 항상 먹는 것도 잊고²⁷⁾
 意會吟詞便撫髯 뜻이 맞아 노래 읊을 때마다 수염을 쓰다듬지
 天命元無分氣理 천명엔 본래 이(理)와 기(氣) 나뉘지 않으니

26) 영오(迎鳥): 영일(迎日)의 별칭이다.
 27) 단단히 ... 잊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섭공(葉公)이 자로에게 공자의 사람됨에 대해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다. 공자가 그 일에 대해 “너는 어찌 그의 사람됨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 이치를 깨달으면 즐거워 근심을 잊어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줄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가[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했다(『논어』 「술이(述而)」).

士林胡至鬪冰炎 선비들은 왜 양립하지 못할 정도로 다투게 되었나²⁸⁾

那時打破東西黨 그 당시 동서분당(東西分黨) 타파했으면

海內和平遠妒嫌 세상은 평화로워 시기와 질시 없었을텐데

■ 고찰

『석곡산고』에는 朴載憲(1875~1926)의 시가 다수 보인다. 『석곡심서』에도 ‘答朴載憲’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이로 보아 이규준과 박재헌은 동문이거나 사제관계로 보인다. 박재헌은 조선말기의 유학자로 본관은 務安이고 자는 國賦, 호는 道山이다. 金興洛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흥락은 퇴계학맥을 잇고 있다. 문집으로 『道山文集』이 있다. 이규준이 『석곡심서』에서 퇴계의 이기론을 강력히 비판하였는데도 퇴계학맥의 박재헌과 강론한 것으로 보아 당시 학계가 당파와 학맥을 달리 하더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 輓都事徐先生

도사(都事)³⁰⁾ 서선생 만사(輓詞)

公山積翠接天齊 공주(公州)의 푸른 기운 쌓여 하늘까지 닿아

鍾出芝蘭幾許畦 그 기운 모여 빼어난 인물 얼마나 나왔나

緒業佳堂兼樂社 가업은 사가정(四佳亭)³¹⁾과

28) 선비들은 ... 되었나: 조선시대 동인(東人)·서인(西人)·남인(南人)·북인(北人)이 당파를 만들어 서로 공격한 것을 말한다.

29) 한국국학진흥원. 『도산문집』의 해제. 영남사립문집, 유교문화관[cited 2009 July 3]: Available from URL: http://www.ugyo.net/yk/gds/gdsHeje.jsp?B_SUJ_ID=KSAC_M_A03000067&sActnType=haje

30) 도사(都事) 서선생: 도사는 조선시대에 주로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종5품의 벼슬로,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충익부(忠翊府)·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31)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호이다.

낙재(樂齋)³²⁾로부터이고

淵源栗谷與梅溪 연원은 울곡(栗谷)과 매계(梅溪)이지

文章簡潔傳金石 문장은 간단하고 정갈해 금석문에 전해지고

談笑從容少角圭 담소는 조용하고 온화해 모난 곳이 적었지

長使後生能想像 후배로 하여금 오래오래 그 모습 떠올리게 하니

賞花臺月水東西 상화대(賞花臺)에 달 뜨고 강은 좌우로 흐르네

■ 분석

이 만사는 뒤에 나오는 ‘祭徐都事臨齋先生文’과 함께 분석하겠다. 이 두 글은 이규준의 유학사상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上叅贊郭俛宇【鍾錫】先生【己酉蜡月】

참찬(參贊) 곽면우(郭俛宇)【이름은 종석(鍾錫)이다】선생께 올린다【기유년³³⁾ 설달】

裹足廿舍，才遂十年荆願。促膝三日，無愧一月坐春。山川脩復，末由源源進陪，退而瞻仰，倍切於未進。怒焉者懷，愈往愈深，寒暑載離，歲且暮矣。伏未審伊來道體，連衛萬康；胤玉趨庭。詩禮日就；門下鼓篋。幾箇成

그는(세종2~성종19) 본관 달성(達成), 자 강중(剛中), 초자 자원(子元), 호 정정정(亭亭亭)이다. 호조전서(戶曹典書)의(義)의 증손으로, 목사(牧使) 미성(彌性)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권근(權近)의 딸이다. 조수(趙須)·유방선(柳方善)등에게 수학했는데, 학문이 매우 넓어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성명(性命)·풍수(風水)에까지 관통하였으며,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시(詩)에 능하였다.

32)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인 듯하다. 그는(명종5-광해군7) 본관 달성(達城), 자 행보(行甫), 호 낙재(樂齋)·미락재(彌樂齋)이다. 전교 흡(洽)의 아들로, 큰아버지 형(涓)에게 입양되었다. 정구(鄭述)의 문인으로, 주자학 및 이황(李滉)의 문집을 깊이 연구하고 중년 이후는 후진을 가르쳤다.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낙재집』이 있다.

33) 기유년: 1909년으로 이규준 55세이다.

章; 閱時觀變, 藏器以待時歟? 閉戶著書, 指南以惠後歟?

발 싸매고 600리 길을 달려와 이제야 십년 동안의 만나고픈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친밀히 함께 사흘 지낸 것이 한 달 동안 봄바람 속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왔습니다. 산천이 멀고 험해 연이어 찾아볼 길이 없으니, 뵈고 난 뒤에는 뵈지 못했을 때보다 그리움이 갑절이나 간절합니다. 굶주린 듯한 허전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데 계절이 벌써 바뀌어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가 떠난 뒤로 도체(道體)는 편안하신지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제들은 글공부와 예의가 날로 향상되는지요, 문하의 학생들은 식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시대를 아파하고 변화를 관찰하면서 세상 구제의 방법을 지니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요? 문 닫아 걸고 저술에 전념하여 후학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고 계시는지요?

伏念生民之初, 莫先於中國; 人種之美, 莫善於中國, 而上失其道, 民散之久, 亦未有甚於此時也. 朋家作仇, 脅權相滅, 諸夏之亡, 反不如夷狄之開明. 爲奴隸不足, 將至爲犧牲, 土生此世, 當如之何? 耆淵長德必有定算, 伏慕之至, 區區願聞. 圭峻學業未就, 年與心違, 知非已過, 溫故莫追, 惟恐終不得朝聞而死也. 所以前日叨陪, 冀有以質其宿疑, 發蒙解惑. 但見撝謙太過, 不得與聞於至言妙訣, 固知其滄浪自取, 悵悵誰咎?

인류가 탄생한 곳은 중국이 가장 빠르고 인종의 아름다움은 중국이 으뜸인데, 통치자가 바른 도리를 잃어 백성이 이처럼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진 것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편당 지어 서로 원수가 되고 위협과 권세로 서로 죽이니, 문명이 사라진 중국은 도리어 오랑캐가 문명화된 것보다 못합니다. 노예가 되기에라도 부족하여 장차 희생으로 사용될 지경이니, 이런 세상에 태어난 선비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연명(陶淵明)의 절의를 회구하는³⁴⁾ 선생께서

34) 도연명(陶淵明)의 절의를 회구하는 :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광종석은 도잠(陶潛)과 김리상(金履祥)의 절의를 본받겠다는 의미로 도잠[자 연명(淵明)]과 김이상[자 길보(吉父)]의 성을 따서 이름을 도(鈞)라 하고 자를 따서 연길

는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지극하여 진심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업의 진보가 없고 해마다 마음과 어긋납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 되었고 옛 것을 익히려 하지만 추구할 수 없어 끝내 조문석사(朝聞夕死)³⁵⁾할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찾아뵈었을 때 쌓여진 의심을 질정하여 어리석음을 깨치고 의혹을 해소하려 했는데, 너무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셔서 지극한 말씀과 오묘한 비결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랑(滄浪)의 물이 흐리고 맑은 것은 창랑의 물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니³⁶⁾, 슬피하고 한탄한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惟‘心卽理’三字 於私心似有渙然者. 何者? 峻嘗於‘理氣二物’‘心性互發’之說, 不能無疑慮, 雖自剔去, 旋復萌起, 反復十年, 妄以爲‘心性一物, 理氣合體’. 猶不敢自是, 及聞先生之言然後, 乃敢自以爲臆見之不大謬也.

‘심이 바로 리[心卽理]’라는 세 글자는 제 마음에 얼음 녹듯 이해되는 듯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항상 ‘리와 기는 두 개의 다른 것이다 [理氣二物]’라는 주장³⁷⁾과 ‘심과 성은 각각 발출할 수 있다[心性互發]’는 주장³⁸⁾에 대해 의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생각은 제거하면 바로 다시 싹터

(淵吉)이라 했다.

35) 조문석사(朝聞夕死) : 도(道)를 깨우치고자 하는 절실함을 말한다.

36) 창랑(滄浪)의... 것이니 : 동자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소중한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더러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했는데, 공자께서 “애들아, 저 노래를 들어보라.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하니, 이는 물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했다(『맹자』「이루(離婁)상」).

37) 이규준은 율곡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道說)과 퇴계 이황의 리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서 모두 리(理)와 기(氣)가 독립적인 실체entity로 설정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2005. pp.3-10).

38) 이 부분은 특히 退溪 李滉이 四端은 理發이고 七情은 氣發이라고 논변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즉 心은 氣에 해당하고 性은 理에 해당하여 心發은 氣가 發하는 것이고 性은 理가 發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서 10년 동안 반복하여 생각해보면서 함부로 ‘심과 성은 동일한 하나이고[心性一物] 리와 기는 합한 것[理氣合體]’이라 여겼습니다. 그래도 이 견해가 옳은 지 감히 확신하지 못했는데, 선생의 말씀을 들은 뒤에야 감히 저의 억측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第伏見盛稿論西人韋廉臣‘太極非上帝’之說，以爲‘太極，理也；上帝，氣也’，以斥韋氏認氣爲理之病，愚竊惑焉。夫上帝與太極，一物而異名耳。上帝猶言心也，太極猶言性也，今既曰‘心卽理’也，何不曰‘上帝卽太極’耶？蓋嘗論之，氣外無理，理外無氣，非有氣而有理，亦非有理而後有氣也。氣中元有理，自其未形而言，則太極在混淪中；自其已形而言，則天地亦氣也，而其所以爲主宰者，乃謂之上帝，上帝乃有形中太極也。上帝·太極，一物而異名耳。未形之前，固一物也，氣一則理亦一；既形之後，爲萬殊，氣萬則理亦萬，而其所以統之者，乃所謂上帝也。五經所載‘郊祀上帝’：‘類于上帝’，蓋謂天皇大帝星也。此星在紫微垣，乃天中最高處也。西人所謂‘上帝綿髮雪衣居碧垣十二門’者，其亦以天皇大帝星假象言之歟！彼但知上帝之無死生·無終始，而不知其無死生·無終始之所以爲自然，又不知其體自然則其用不容不自然也。吁！其亦蔽而已矣。所謂‘天皇大帝’者，亦上帝之表象也。若上帝之眞體，則無聲無臭而亦不離於上，卽所謂太極也。今曰‘太極，理也；上帝，氣也’，此正吾斯之未能信者也。

다만, 선생의 저술을 보니, 선생께서 서양 사람 위엄신(韋廉臣)³⁹⁾의 ‘태극은 상제가 아니다[太極非上帝]’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시면서 ‘태극은 리이고, 상제는 기이다[太極理也 上帝氣也]’라고 하여 기(氣)를 리(理)로 오인한 위씨의 오류를 논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제와 태극은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상제는 말하자면 심(心)이고, 태극은 말하자면 성(性)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심이 바로 리[心卽理]’라고 하셨으니, 어째서 ‘상제가 바로 태극이다[上帝卽太極]’라고 말

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기(氣) 밖에 따로 리(理)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理) 밖에 따로 기(氣)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氣)가 있는 뒤에 리(理)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理)가 있는 뒤에 기(氣)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氣) 가운데 원래 리(理)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말한다면 태극은 혼륜(混淪)의 상태에 있습니다. 천지가 형성된 이후로 말하자면 천지도 역시 기(氣)인데 그것을 주재(主宰)하는 측면에 대해 상제라고 부르는 것이니, 상제는 다름 아닌 유형 가운데의 태극인 것이다. 상제와 태극은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천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만물이 원래 동일한 하나의 물건이니, 기(氣)가 하나면 리(理)도 하나입니다. 천지가 형성된 후에는 만가지로 다른 것이 되어 기(氣)가 만 개이면 리(理)도 만 개인데, 그것을 통괄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상제입니다. 오경(五經)에서 ‘교외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지낸다[郊祀上帝]’, ‘상제에게 유 제사를 지낸다[類于上帝]’고 할 때의 상제는 천황대제성(天皇大帝星)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별은 자미원(紫微垣)⁴⁰⁾에 있으니, 바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서양 사람이 말한 ‘상제는 긴 수염에 눈 같이 하얀 옷을 입고 벽원(碧垣) 12문에 앉아 있다[上帝綿髮雪衣居碧垣十二門]’는 것도 아마 천황대제성을 상상하여 말한 것일 겁니다. 그들은 다만 상제에게는 생사와 시종이 없다는 것만 알고, 생사와 시종이 없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점은 모릅니다. 또, 체(體)가 본래 그러면 용(用)도 반드시 본래 그렇다는 점도 모릅니다. 아! 그렇게 된 것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천황대제’라는 것도 상제의 표상입니다. 상제의 본체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위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태극입니다. 지금 ‘태극은 리이고, 상제는 기[太極理也 上帝氣也]’라고 하신 부분은,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其他所疑，如山如河，向者只緣囊橐空匱，不得久館，

39) 위엄신(韋廉臣) : 스코틀랜드 사람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1829-1890)이다.

40) 자미원(紫微垣) : 성좌(星座)의 명칭이다. 북두(北斗)의 동북에 위치한 것으로 중국 천문학에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태미(太微)·천시(天市)와 함께 삼원(三垣)이라 한다.

居然告歸，悵悵遲遲，迨今缺然。卽欲重晉門下，卒聞緒餘，而行道多梗，未由遂誠。然心猶未已，未知那時路平好事無魔耶。茲敢替書仰質，儻蒙不吝賜誨否？餘伏祝爲道難老，以副區區遠忱。

이 이외에 의문 나는 점이 산과 강처럼 많았는데, 저번에 여비가 바닥나 여관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그리워 지금까지도 아쉽습니다. 곧바로 선생께 다시 나아가 끝내 나머지 말씀을 들으려 했는데 길 가는 데 장애가 많아 제 정성을 이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씀니여 전히 그치지 않으니 언제 길이 안정되고 일에 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편지를 써서 여쭙니 혹시 가르침을 아끼지는 않으시겠지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도를 추구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셔서 작은 저의 마음에 부응해 주시기를 빕니다.

■ 고찰41)

俛宇 郭鍾錫은 19세기 영남유학계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寒洲 李震相의 제자이다. 이진상은 ‘心卽理’설로 퇴계학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경상우도 지역에서 그의 학문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광종석은 그의 유학사상을 계승한 대표적 제자이다. 광종석에게 보낸 이 글은 이규준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당시의 유학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위 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17·8세기 이후의 程朱學界는 李滉과 李珥의 학문 상호간의 논쟁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서 여러 가지 분지로 갈라지게 되고 같은 사승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내놓게 된다. 이황과 이이의 학맥 내에서도 핵심적 문제를 끝까지 몰고 가 결국 스승의 이론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理氣論에 있어서의 理一元論化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이황의 理發說과 氣發說의 상호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理氣互發說을 버리고 理를 氣보다 근원적, 主宰의 위치로 완전히 격상

시켜 리와 기의 관계를 상하, 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심지어 리 자체가 작용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의 작용력 자체, 즉 형이하학적인 영역도 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진상이다. 이진상에서 연원하여 경북서남과 경남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광종석, 李承熙, 李炳憲등이 이 학파로 분류된다.

이진상의 학문적 경향을 요약하면, ‘心卽理’와 ‘心性一理’이다. 그는 심의 주재성 내지 주체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철저한 理一元論을 펴나간다. 심이 理氣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理가 심의 가장 근원적 요소라고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심즉리’를 풀이하면서, 자신의 理란 심의 본체만을 일컫는 것으로 자신만이 진정한 심즉리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⁴²⁾. 動靜함에 있어서 리가 원인자이자 주체가 되기 때문에 리는 스스로 動하고 스스로 靜한다. 나아가 동정하는 陰陽의 氣는 다름 아닌 太極, 즉 理의 動靜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動靜의 근본적 주체는 陰陽의 氣가 아니라 陰陽의 動靜을 스스로 포함하고 있는 理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결국 현상태의 氣의 動靜은 理의 動靜에서 유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⁴³⁾.

이진상은 전통적 리기론에서 心의 氣의인 측면인 知覺을 理의 특성으로 포함시키고, 理의 주재성을 논리적 관계에서 살펴보던 전통적 경향에서 벗어나 理의 주재성을 현실적, 실제적 주재성으로 해석함으로써, 心卽理라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性보다 心이 보다 포괄적이고 주재의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는 心의 체용이 각각 性情이므로, 心 이외에 따로 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心統性情’의 統을 포괄의 의미로 해석한다. 결국 性은 未發의 理, 情은 已發의 理를 의미하게 되고, 心性情은 一理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에게 理가 靜한 것이 性이고, 動하는 것이 情이다. 心의 본체가 性이고, 妙用이 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心은 一理이고

41) 이번 고찰은 권오민의 논문(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2005. pp.20-22.)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42) 조선후기의 理一元論化 경향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3)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1. p.645.

性情은 心の 分殊라고 규정한다. 理는 실재적, 능동적 주재력을 가지고 있고⁴⁴⁾, 心은 理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心은 지각 뿐만 아니라 주재능력을 갖추고 있다. 未發의 性과 已發의 情은 따름 아닌 心の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진상의 리일원론과 심론을 이규준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마치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은 자신과 같은 얼굴이지만 좌우가 바뀌어 나타난다. 이규준의 기일원론·심기론과 이진상의 리일원론·심리론을 겹쳐보면, 氣의 자리에 理를 들여 놓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글에서도 이규준은 이진상의 심즉리설이 심을 들어 아닌 하나로 파악하였고 심을 순전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신이 그간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맞장구 치고 있다. 다만 태극을 리로 보면서 상제는 기로 간주하고 있는 관중석의 견해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太極은 理이고, 上帝는 氣라는 주장은 수미일관되지 못하고, 心即理說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心性이 모두 理라면 상제가 주재성이 있더라도 이는 리의 동정으로 보아야 따로 분리해서 다시 理와 氣로 배당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면 타당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 答李朗山【屋○丙午四月】

이낭산(李朗山)에게 답하다【이름은 후(屋)이다 ○ 병오년⁴⁵⁾ 사월】

一別軒扉，居然三載。憧憧往來，不謀而同，此豈非聲氣之所感者耶？匪意一條清風，入陋巷，忽見三秀冠童，袖擲一封書函，忙手披讀，乃吾朗山高士之賜我心畫者也。其學識之深造，文詞之老健，不啻刮目以相對也。讀之未半，不覺首額頓下。就中閱時憂道，固方今衣縫掖抱簡編之大同大患也。不識蒼蒼者處分，究竟如何。言之無益，尙矣置之。

44) 이이(李珣)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주자학에선 理의 動靜, 즉 작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45) 병오년 : 1906년으로 이규준 52세이다.

택에서 헤어진 후로 훌쩍 3년이 흘렀습니다. 끊이지 않고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약속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니, 소리와 기운이 감응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뜻밖에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누추한 골목에 불어와 삼수(三秀)⁴⁶⁾ 같은 홀류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가 소매에서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둘러 꺼내 읽어보니 바로 우리 낭산 고사께서 내게 보내신 마음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 수준 높은 학식과 노숙한 글솜씨는 눈을 닦고 볼 뿐만 아니었습니다. 반도 채 읽기 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대를 아파하고 도(道)를 걱정함은 진실로 지금 현재 유학자의 옷을 입고 서책을 안고 있는 이들이 모두 크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의 처분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봐야 무익하니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第審估畢之餘，以阿瞞之患，至於閉戶瞑目，吁！此何惡報？見今經學之士往往以沈痼停工，此亦氣數之使然耶？浩歎浩歎！但念美慎不至貞癩，善加調治，則亦自有過已之喜，用此奉慰而自慰耳。肆以惟祝爲道自愛，早臻勿藥耳。適因座擾，來人促歸，胡亂走草，不能具禮。

글을 읽으시는 나머지 눈이 침침한 병환이 나서 문닫아 걸고 눈을 감고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악보(惡報)란 말입니까. 현재 경학(經學)하는 선비들이 종종 오랜 병 때문에 공부를 멈추고 있는데, 이 또한 하늘의 운수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다만 선생의 병은 고질병이 아니니 잘 조리하시고 치료하시면 금세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로 위안을 올리고 저도 위안을 삼습니다. 이상을 추구하시면서 스스로를 아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약을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 좌중이 떠들썩하고 편지 전하러 온 사람이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대강 써서 격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46) 삼수(三秀) : 영지(靈芝)의 별명이다. 영지는 1년에 세 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삼수라고도 하는 것이다.

■ 고찰

이진상의 학문을 곽종석에게 이어지고, 朗山 李存堧는 곽종석의 제자 중 한명이다.⁴⁷⁾ 다시 말해 이진후는 한주의 학문을 이은 것이다. 그래서 『석곡산고』의 편자는 곽종석에게 올린 이규준의 글과 이진후에게 보낸 답서를 앞뒤로 이어놓은 듯하다.

○ 病錄 병에 대한 기록⁴⁸⁾

眼病大抵屬熱. 然今詳美慎, 恐是肝腎虛冷, 虛火上升也. 何以知之? 每當陰天風雨, 則昏疼尤甚, 及晴則稍明, 此爲陽虛之明證也. 其赤爛生翳者, 風火之相搏也. 何以知之? 欲清其火, 則眞陽愈虛, 精明不發也; 欲補眞陽, 則上火先急, 反到客熱, 此正醫人之不能下手處也. 所以前日所服, 無非清涼瀉火之劑, 則熱痛似息, 而精明益損, 所謂‘虛花亂映, 如霧如煙’者, 皆內藏不足之證也. 若循襲往蹟, 則愈往愈離, 不可救也. 愚見如此, 故妄欲以補元爲主, 而兼助以治瞽之味, 未知此見果中病症. 然且須少試之, 若無所害, 則連進長驗, 似好耳. 且念貴慎未至着根, 尙可爲也, 幸勿大慮. 萬加調護, 至祝至祝.

눈병은 대체로 열(熱)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의 병을 살펴보면 간장과 신장이 허랭(虛冷)하고 허화(虛火)가 위로 치밀어 올라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흐린 날 비바람이 불 때마다 눈이 흐려지고 아픈 것이 더욱 심해지다가 날이 맑아지면 조금 눈이 밝아지니, 이것은 양기(陽氣)가 허(虛)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이 붉게 문드러지고 백태가 끼는 것은 풍(風)의 기운과 화(火)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화(火)의 기운을 낮추고자 하면 진양(眞陽)이 더욱 허해져 정명(精明)이 드러나지 않고,

진양의 기운을 북돋으려고 하면 화의 기운이 먼저 급히 올라가 도리어 객열(客熱)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바로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드신 약이 시원하게 해서 화의 기운을 쏟아내는 약제였다면 열로 생기는 통증은 그친 듯 하나 정명이 더욱 손상되었을 것이니, 이른바 허화(虛花)가 어른 거린다든가 눈에 안개가 낀 듯하고 연기가 낀 듯하다는 것은 모두 내장의 기운이 부족한 증거입니다. 만일 이전의 처방을 그대로 따른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멀어져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함부로 원기(元氣)를 북돋는 것으로 주안점을 삼고 아울러 백태를 치료하는 약을 보태었습니다. 이러한 제 견해가 과연 병의 증세에 적중할지의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험 삼아 드셔보시고, 만일 해로움이 없다면 계속 오래도록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선생의 병은 뿌리에 박히지는 않아서 아직 치료할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모로 몸조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분석

이 글은 이규준이 이진후의 눈병에 내린 진단으로 보인다. 肝腎虛冷이 虛火上升을 유발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경우 補眞陽하려 하면 화를 치성하게 할 우려가 있고 화를 清하려 하면 진양을 더욱 虛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규준은 內臟을 補元하는 치법을 주로하고 여기에 겸하여 瞽를 치료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처방하고 있다.

이 병록은 『석곡산고』에서 흔치 않은 의학 관련 내용인데, 이규준의 의학사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규준은 이 병록에서 자신의 부양의학에 근거한 예방치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

교남(嶠南) 교육회 회원 박정동(朴晶東)·이근중(李根中) 등에게 주다

圭峻白教育會僉尊座下. 伏惟炎老, 僉尊旅體, 大都

47) 한국국학진흥원 저. 입체선생문집 해제. 유교문화관. 유교문화권 목판 [cited 2009 July 11]: Available from URL: http://www.ugyo.net/mt/mdt/mkdt_heje.jsp?mdt_code=109&mdt_name_kor=%EC%9E%85%EC%9E%AC%EC%84%A0%EC%83%9D%EB%AC%B8%EC%A7%91&CODE1=03&CODE2=02&CODE3=02&CLSS=3

萬貞, 頌祝頌祝. 峻蟄伏荒瀨, 已成痼疾, 足跡絕於山外, 姓名漏於鄉曲, 不知人間何事, 惟自甘腐敗耳. 不意於夏初有一封書, 卷自郵而至, 視其題曰, 嶠南教育會雜誌; 觀其書, 乃吾南僉君子悶學者之固滯, 而誘進於開明新教者也. 如此新貴之書, 何以遠及於無姓名沒知覺頑固腐敗之物耶? 且惶且訝, 莫知攸謝. 曾未炎涼, 此等副編繼郵而來, 却又思之, 如此新貴之書, 價值不少, 牛衣寒生, 何以應之? 感激未暇, 恐怯先至. 就看那前後兩編, 略相反復, 鍼線伏現, 韻調倡和, 誠談論之雄筆之魁也.

이규준이 교육회 여러 선생님에게 아웁니다. 한창 더운 날씨에 여러 선생들은 여행하는 처지로 대체로 평안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궁벽한 바닷가에 처박혀 사는 것이 이미 고질병처럼 되어 족적은 산 밖에 끊어지고 성명은 시골에서 잊혀졌습니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썩어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뜻밖에 초여름에 책 한 권이 우체국에서 배달되었는데, 그 제목이 교남교육회잡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 영남의 여러 군자들께서 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개명된 신교육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도 귀중한 책이 어째서 멀리 유명하지도 않고 지각도 없으며 고집세고 썩어가는 자에게 이르렀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여 뭐라고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도 이러한 책이 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새롭고도 귀중한 책은 값이 적지 않을텐데 나 같은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나? 감격에 빠질 겨를도 없이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 왔습니다. 전후로 보내신 두 책을 보니 대략 같은 내용인데, 은연중에 훌륭한 내용이 드러나고 어조가 조화로우니 참으로 뛰어난 담론이고 훌륭한 글솜씨입니다.

第其中有不可不仰質者. 當今西勢東侵, 新教大張, 開明之風潮日漲, 維新之謠鼓方颺. 奔競之徒, 去舊就新, 如蟻之蠶, 蠶之蕊. 年少新進, 率皆換性命去倫禮, 棄冠裳毀墳籍, 惟西人是師. 于斯時也, 惟我嶠南僉賢

君子, 能從中調護, 挽回舊教, 維持倫常, 可謂回狂瀾於既倒, 引墜緒於已絕, 其功豈不偉乎哉?

다만 그 가운데 물어봐야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침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식 교육이 크게 신장되어 개명의 풍조가 날로 팽창하고 유신의 노래가 한창 끊어오르고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들은 개미가 냄새나는 곳으로 가듯, 벌이 꽃을 찾아가듯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에 나아가고, 젊은 후배들은 모두 본성을 바꾸고 윤리를 버리며 전통 복장을 버리고 옛 서적을 훼손하면서 오직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남의 여러 군자들께서 중용의 도리로 보좌하여 옛 가르침을 만회하고 윤리와 도덕을 유지한다면 이미 닦친 미친 소용돌이를 되돌이키고 이미 끊어져버린 전통을 당겨오는 것이니 그 공적이 어찌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然其意嚮欲使新舊融合, 華夷混同, 至有推尊西教, 捧加于先王大教之上, 愚竊惑焉. 若使西人所謂理學化學之說, 能洞見天地之機輿, 則西方果有真聖人, 而中洲先王自羲軒以下, 皆不足爲聖人也, 新進之去舊就新, 惟西人是師, 不亦宜乎? 彼天文之說, 莫察於地球, 夫陽曆是則陰曆非是, 地球是則蓋天非是, 是猶水火冰炭之不同處也, 將何以融合乎? 何以混同乎? 若使羲軒諸帝不知天文地理之原, 則自餘性命之論倫禮之說, 皆不過人爲之安排, 何足爲萬世常典? 新進之換性命去倫禮, 棄冠裳毀墳籍, 而惟西人是師, 固其所也. 如其不然, 則守舊之士, 甘受頑固之名, 仇視開化之人, 至死不變, 亦何怪乎? 夫東洋之比於西洋, 民性之暴悍, 我不如彼; 器機之精利, 我不如彼. 惟此性命之論倫禮之說, 獨得天地之大道, 所以爲萬物之靈四夷之王也, 而今皆大謬, 則黃種之人不足爲白種之奴隸, 充諸犧牲, 固無怪也. 如其不然, 亦豈無天定勝復之日耶? 天人大道之原, 有不可驟語, 姑舉其曆象之最著者, 仰質于僉執事, 幸垂鑑亮焉.

그러나, 그 의향이 신구(新舊)를 융합하고 문명국과 오랑캐를 뒤섞고자 하여 심지어 서양 종교를 존중

하여 선왕의 큰 가르침 위에 두려고 하니 저는 내심 당혹스럽습니다. 서양인이 말하는 이학(理學)이나 화학(化學)의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신비한 이치를 시원스레 파악할 수만 있다면 서양에는 과연 참 성인이 있고 복희씨(伏羲氏)·현원씨(軒轅氏) 이래로 중국의 선왕들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젊은 후배들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에 나아가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들의 천문학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으뜸입니다. 양력이 옳다면 음력은 틀린 것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옳다면 하늘을 덮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불, 얼음과 습이 같은 곳에 있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융합할 것이며, 어떻게 뒤섞겠습니까? 만일 복희씨와 현원씨 등의 제왕들이 천문과 지리의 원리를 몰랐다면 그 나머지 본성과 천명에 관한 이론, 윤리와 예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인간이 억지로 안배한 것에 불과하니 어찌 영원히 준수해야 할 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젊은 후배들이 본성을 바꾸고 윤리를 버리며 전통 복장을 버리고 옛 서적을 훼손하면서 오직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옛 것을 묵수하는 선비들이 완고하다는 오명을 달게 받고 개화인을 원수 보듯 하여 죽어도 변치 않는 태도가 어찌 해괴한 일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보면 성품의 난폭함은 우리가 그들만 못하고, 기계의 정밀함은 우리가 그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본성과 천명에 관한 이론, 윤리와 예법에 관한 설명만이 유독 우주의 큰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고 모든 오랑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크게 잘못 되었으니 황인종이 백인종의 노예가 되는 것도 부족하니, 희생물로 쓰이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어찌 하늘이 그들을 제압할 날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우주와 인간에 관한 큰 이치의 근원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해하기 쉬운 역법(曆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여쭙어보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今執事欲融合新舊，混同華夷，將何以融合乎？將何以混同乎？貴書以爲西曆合於黃鍾，夫黃鍾損益者，稍涉人爲安排，而曆象乃自然，非容人爲安排者，不可以相決也。且執事以此加十八乘，爲湊合於十二萬九千六百之數，此亦欠考。所謂十二萬九千六百年爲一元之終者，乃邵氏之說也。其說以三十日爲一月，三百六十日爲一歲，爲世運會元之起例。然天度實無三十日一月·三百六十日一歲之數，此雖有說，其奈基三百有六旬六日何？苟使『堯典』不謬，則其奈『黃極經書』何？惟高明深思而處之。蓋三十日者，一月之大數也；三百六十日者，一年之大數也。且以皇帝王霸爲春夏秋冬，年數遠近懸絕，雖邵氏，但知大數而已，至於曆象之真數，蓋未之見到也。敢煩高明再思古曆，歲餘，四歲而成一日，四百年得百日，而西曆四百年得九十七日弱。然則古曆之比西曆，剩步三日，二千年，剩步十五日矣。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융합하고 문명국과 오랑캐를 뒤섞으려 하는데, 장차 어떻게 융합할 것이며 장차 어떻게 뒤섞을 것입니까? 보내 주신 책에 서양 책력이 율려에 부합된다고 하셨는데 율려의 손익법은 약간 인위적인 안배를 거쳤지만, 책력과 책력에 근거가 되는 천문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안배할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으로 여기에 18을 곱하면 129,600년이라는 수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이른바 129,600년이 1원(元)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북송 시대 소옹(邵雍)의 학설입니다. 그 주장은 30일을 한 달로 삼고, 360일을 한 해로 삼아 세운회원(世運會元)의 수⁴⁹⁾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도수에는 실제로 30일이 한 달이 되거나 360일이 한 해가 되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록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일년의 주기는 366일[基三百有六旬六日]⁵⁰⁾'이라 한

49) 세운회원(世運會元)의 수 : 소옹의 '율회운세설(元會運世說)'이다. 1원(元)은 12회(會), 1회는 30운(運), 1운은 12세(世), 1세는 30년(年)이다. 1원은 30×12×30×12 즉 129,600년으로, 이것이 바로 천지가 생성 소멸하는 1주기라고 한다.

50) 일년의 주기는 366일[基三百有六旬六日] : 『서경』「요진」에 나오는 말이다.

말에 대해서는 어쩔 것입니까? 만일 『서경』 「요전」이 틀리지 않았다면 소옹의 『황극경세서』를 어쩔 것입니까? 고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일은 한 달의 큰 수이고, 360일은 한 해의 큰 수입니다. 또한 소옹이 삼황(三皇)·이제(二帝)·삼왕(三王)·오패(五霸)⁵¹⁾를 춘하추동에 분배한 것은 연수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 소옹 같은 훌륭한 학자라도 큰 수만 알았을 뿐이고 역력과 천문현상의 참된 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합니다. 고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옛 역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한 해의 나머지 날수 1/4일은 4년이 되면 하루가 되고, 400년이 되면 100일 되는데, 서양 역법에서는 400년에 97일 남짓 됩니다. 그렇다면 서양 역법에 비해 옛 역법은 3일이 더 남고, 2000년이 지나면 15일이 더 남게 됩니다.

夫自黃帝至朱明洪武，恰過四千餘年，則冬之一月已盡入明春也。何故？觀之於斗建，不違；察之於物生，不變耶？西曆之安排蹊脫，到此而不可誣也。吁！中國之無聖人，久矣。曆法之染西，于今二百餘年，這間得失，推此可知矣。

황제 때로부터 명나라 홍무(洪武) 연간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4000여년이 지났으니, 겨울 한 달이 이미 완전히 다음해 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두칠성자루의 위치를 보면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서양 역법이 역지로 안배하고 영성하다는 것은 이 점에 이르러 분명해집니다. 아! 중국에 성인이 태어나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역법이 서양에 물든 것이 지금 200여년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단점은 이것으로 유추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1) 삼황(三皇)·이제(二帝)·삼왕(三王)·오패(五霸) : 삼황은 전설상의 제왕으로, 보통伏羲(伏羲), 신농(神農), 황제(皇帝)를 가리킨다. 이제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다. 삼왕은 하(夏)나라 우왕(禹王)과 주(周)나라 문왕(文王)·무왕(武王)이다. 오패는 춘추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 진(晉)나라 문공(文公), 진(秦)나라 목공(穆公), 초(楚)나라 장왕(莊王), 송(宋)나라 양왕(襄王)이다.

西人之所長，惟器機利用而已。其淫奢極巧，不可盡用。然今舉天地爲一大戰國，兵器不可不修也。若以孔子之術爲宗教，而傍取西人之機技，則可謂得時務之要矣。今僉君子，其能以此目的爲教育旨意否乎？亦能使法人許其留髮存袖耶？若爾則學校益廣，開化之流速於置郵而傳命，岩穴之士，將有以革其頑固，而廣其新智矣。雖以賤生之腐敗無狀，亦得觀感激厲，而受賜多矣。夫如是則躋生民於文明仁壽域，奠邦國於世界第一等，此乃大事業大功德，竊爲當世第一流望之。

서양인의 장점은 기계 등 도구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사치스럽고 지나치게 교묘하여 모두 쓰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었으니 병기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자가 제시한 방법을 최상의 가르침으로 삼고 옆으로 서양인의 기계와 기술을 취한다면 시무(時務)의 핵심을 얻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군자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교육의 취지로 삼을 수 있습니까? 또한 법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투를 틀게 하고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학교가 더욱 확대되어 개화의 물결이 역말을 이용해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촌구석에 은거하고 있는 선비가 장차 그 완고한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지혜를 널리 나갈 것입니다. 비록 저 같이 썩어 문드러져 형편 없는 자도 또한 보고 감동하여 분발하게 되어 은혜를 입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백성들을 문화가 찬란하고 장수하는 지경에 들어 보내고, 우리나라를 세계 1등국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큰 사업이고 큰 공덕입니다. 가만히 당대의 일류를 기대해 봅니다.

■ 고찰

이 글을 통해 이규준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이규준의 서양문물과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교남교육회를 통해 이규준의 교류인물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남교육회는 서울에 있던 영남출신 인사들이

1908년에 조직한 교육을 통한 자강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였다.朴晶東은 초대 발기인 겸 도서부장, 평의 회장, 그리고 2대 회장을 지냈다. 교육을 통한 일제 해방, 근대산업발전, 근대민주주의 전파 등을 목적으로 각지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1909년에 교남 교육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잡지에는 주로 지리학·교육제도·사학·법률학·물리학과 같은 근대자연과학에 관한 글들이 많이 실렸다⁵²⁾⁵³⁾. 이 글에는 잡지에 실린 근대문물과 과학기술에 관한 글에 대한 감상과 비판을 적고 있는데, 이 글과 이규준의 서양의 문화, 문물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을 적은 『포상기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규준의 서양에 대한 태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교남교육학회와 관련해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이 학회에 安熙濟가 평의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⁴⁾. 안희제는 『석곡심서』를 발간한 사람이기도 하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될 만큼 항일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애국지사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규준의 교류 인사 중에 상당수가 안희제와 같이 애국항일지사가 많다. 안희제가 1917년 5월 23일 이규준에게 『석곡심서』의 발행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보낸 간찰이 『독립운동가 서한집』에 실려 있기도 하다.

○ 祭克齋李先生【公旼】文【庚子大

祥時 合詞致祭 而有權景畦外數人】

극제(克齋) 이선생【이름은 공민(公旼)이다】 제문【경자년 대상(大祥) 때에 합사(合詞)하여 제사를 올렸는데, 권경휴(權景畦) 외 몇 명이 있었다】

嗚乎哀哉! 先生之道, 其有所傳述乎! 淵源乎潭華, 師受乎梅立, 門路之正, 踐履之卓, 婦孺所知, 況在其腳下之詳視而熟習者乎? 越惟祖奠之道, 練祭之夕, 各述其

52) 정관. 교남교육학회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1987. 10집. pp.95-124.
53) 채휘균. 교남교육회의의 활동 연구. 교육철학. 한국교육철학회. 2005. 28집. pp.89-110.
54) 정관. 교남교육학회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1987. 10집. pp.95-124.

所視, 各陳其所懷, 概已悉矣. 今乃合辭而并告之, 豈有他哉? 惟其摧樑之痛同, 羹臚之慕一.

아, 슬프구나! 선생의 도는 전수받은 곳이 있구나! 석담(石潭)과 화양(華陽)⁵⁵⁾에 근원을 두고 매산(梅山)과 입헌(立軒)을 스승으로 섬기셨다. 학통이 바로고 실천이 뛰어남을 아녀자도 아는 바이니, 하물며 그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익숙히 익힌 자는 어떻겠는가? 조전(祖奠)⁵⁶⁾하는 길에, 연제(練祭)⁵⁷⁾ 지내는 저녁에 각자 본 것을 진술하고 품은 생각을 진술하여 대개 드릴 말씀은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은 합사(合辭)하여 아울러 말씀 올리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오직 대들보가 부러진 애통함⁵⁸⁾이 같고 국과 담장에 보이는 사모함⁵⁹⁾이 같을 뿐입니다.

嗚乎! 昔在我侍坐於容丈之間, 朝夕曉諭而警策之. 顧此駑駘頑驥, 往往走佚, 不能無泛駕之疾. 越自易簣以來, 有若喪相之瞽·失餘之孩, 其有歧惑, 誰就而質? 其有愆欲, 誰憚而窒? 几筵在茲, 杖履在茲, 尙覺不似昔日, 矧今之後, 儀像既掇, 德音漸邈, 則將駸駸然蹉跌, 或口體馳盪, 于風于浪, 或方寸交戰, 乃冰乃炭.

아! 예전에 제가 가까운 자리에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조석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노둔하고 완고한 자가 종종 내뺄 도망가 수레를 뒤엎는 병통⁶⁰⁾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55) 석담(石潭)과 화양(華陽) : 석담은 울곡(栗谷) 이이(李珣)이고, 화양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다.
56) 조전(祖奠) : 발인(發靚) 전날 저녁에 제수를 올려 지내는 제사.
57) 연제(練祭) : 연(練)은 삼베를 마전하여 표백하는 것이다. 옛날 초상에는 마전하지 않은 거친 삼베로 두건을 만들어 쓰다가 1년이 지나 소상(小祥) 때가 되면 마전한 삼베로 만든 두건으로 바꿔 쓰기 때문에 소상제(小祥祭)를 연제라고 하는 것이다.
58) 대들보가 부러진 애통함 : 훌륭한 스승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59) 국과 담장에 보이는 사모함 : 옛 성현이나 스승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요(堯)임금이 죽은 후에 순(舜)이 3년을 사모하여 식사 때에는 국에서 요임금을 보는 듯하고 앉을 때에는 담장에서 요임금을 보는 듯하였다(『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
60) 수레를 뒤엎는 병통 : 힘이 센 말이 궤철(軌轍)에 얽매이지

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별세하신 뒤로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잃은 장님처럼, 유모를 잃은 갓난아처럼 되었으니, 의혹이 들면 누구에게 나아가 물어보겠습니까? 잘못된 욕망이 생기면 누구를 두려워하여 거두어들이겠습니까? 사용하시던 안석과 대자리와 지팡이와 신발이 여기에 있는데도 오히려 옛날과 같이 앓음을 느끼니, 하물며 이후에 물건들이 철수되고 훌륭한 말씀이 점점 아득해지면 장차 눈 깜짝할 사이에 잘못되어 혹은 도리를 따르지 않고 바람이나 물결처럼 몸의 욕망에 따라 방탕해지고 혹은 얼음과 솟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작은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嗚乎! 先生之澤, 其將如斯而已耶? 後生小子, 其將不得聞先賢相傳之旨耶? 尙賴胤君昆季如壁連城, 遺稿琬琰勝金萬籟, 先生之澤烏可有極? 而後生小子, 亦其無興起而紹明者乎?

아! 선생의 은덕이 이와 같을 뿐이란 말입니까? 후배들과 제자들은 장차 옛날 훌륭한 어른들이 전수하던 뜻을 들을 없단 말입니까? 슬하의 든든한 자식들이 이어진 성처럼 많고 아름다운 유고(遺稿)는 금을 담은 만 개의 광주리 보다 나으니, 선생의 은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후배들과 제자들도 또한 발심(發心)하여 계승하여 도를 밝혀 나가지 않겠습니까?

嗚乎! 惟我先生, 海山之精, 儒林之英. 其在世, 則有截然仰止之望; 其反化, 則必有昭然陟降之靈. 伏願尊靈默佑斯文, 警余二三子, 無至前所稱, 啓迪後生, 以副後所稱, 以光此東海之汀. 茲余二三子夙夜畏忌, 不惰其身. 合忱爲羞, 和血爲文, 駢聲大哭, 以泄肝膈. 伏惟尊靈, 其監其格.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해산(海山)의 정수를 받고 나신 분으로 유림(儒林)의 영웅입니다. 생존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업숙히 존경하며 바라보았고, 별세하

않고 명예를 뒤집어엎는다는 뜻인데, 보통 상도(常道)를 따르지 않는 영웅을 비유한다(『한서』 「무제기(武帝紀)」). 여기서는 선생의 가르침을 준수하지 않고 벗어났음을 말한다.

셨을 때는 뚜렷이 오르내리는 혼령이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존엄하신 혼령께서는 조용히 우리 유학을 도우시고, 저희 제자들을 깨우쳐 앞에 말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후배들을 계도하여 뒤에 말한 지경에 부응하게 하시어, 이 동해의 물가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제자들이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몸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성을 합하여 제수를 올리고 피를 섞어 글을 지은 뒤 모두 대성통곡하여 진심을 토로합니다. 존엄하신 혼령께서는 굽어보시고 이르기 바랍니다.

○ 祭徐都事臨齋先生文

도사(都事) 서임재(徐臨齋) 선생 제문

維歲次乙巳正月甲戌朔二十二日乙未, 臨齋先生義禁府都事達城徐公, 卒于達城之南山本第. 門下生月城李圭暖, 家在二百里, 加以憂病沉滯, 喪不能佐飯, 葬不能執紼. 乃以越四月丁巳, 敢用商祭一甌, 再拜哭奠于靈座之下曰,

을사년(1905) 정월(초하루는 갑술일) 22일(을미일)에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 임재(臨齋) 서 선생(본관은 달성)께서 달성(達城)의 남산에 있는 본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문하생인 월성(月城) 이규준(李圭峻)은 집이 200리 거리에 있고 근심과 병으로 칩거하고 있어 별세하셨을 때는 반함(飯含)을 돕지 못하고, 장례식 때는 상여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정사일(61)에 감히 말린 물고기 하나로 제배하고 통곡하며 영전 아래 올리고 말씀드립니다.

嗚乎哀哉 아 슬프다!

公之來也 惟巖降彩 선생께서 태어나실 때 산에서 광채를 내려주었고

公之逝也 斯文盡瘁 선생께서 별세하실 때 우리 유학자들 모두 쓰러졌네

天資近道 夙敏溫良 천성이 천도(天道)에 가까워 일찍 지혜롭고 온화하고 어질고

61) 4월 정사일 : 1905년 4월 정사일이니, 이규준 나이 51세이다.

幼而克孝 長而慈詳 어릴 때는 효성을 다하고 장성
 해서는 자상하였지
 德音柔嘉 孰知其剛 훌륭한 말씀은 부드러우니 누
 가 그 강인함을 알 것인가
 早謝詞苑 直趣門牆 일찍 문단(文壇) 떠나 곧장 공
 자의 학문으로 달려가
 淵源石潭 尋蹊華陽 석담(石潭)에게 연원을 두고
 화양(華陽)의 뒤를 좇았지
 白雪梅山 菁莪之叢 매산(梅山)에게서 훌륭한 곡조
 배웠으니 인재 육성의 숲이었지
 樞衣升堂 幾個成功 예의를 갖추어 마루에 올라 일
 마나 많은 공적을 이루었는가
 肅齋鼓山 大鳴湖中 숙재(肅齋)⁶²⁾와 고산(鼓山)⁶³⁾
 은 호남에서 크게 떨쳤고
 嶠南高足 立軒與公 영남의 큰 스승은 바로 일헌
 (立軒)과 우리 선생이지
 濟濟多士 邦家之龍 훌륭한 많은 인재들, 국가의
 동량인데
 崇極而圯 次第見背 너무 높이 올라가 무너졌나?
 차례로 세상을 떠나시고
 狂瀾砥柱 惟公是在 미친 파도 속의 지주(砥柱)⁶⁴⁾
 는 오직 우리 선생뿐이었지
 拒彼邪說 闢我來裔 저 사악한 이론을 물리치고 우
 리 후배를 이끌어주시어
 文被金石 言徵典禮 글은 비석에 새길만 하고 말씀

은 예법의 전거가 되었지
 荀淑有孫 子夏無罪 순숙(荀淑)에겐 자식 있고⁶⁵⁾
 자하(子夏)에겐 잘못 없으니
 碩果不食 餘慶昭晰 큰 과실 먹히지 않고⁶⁶⁾ 넘치
 는 경사 환히 빛날 것이네
 早登國庠 晚陞憲臺 일찍 성균관에 입학⁶⁷⁾하고 만
 년에는 사헌부에 올랐는데
 素履不變 角巾有崑 평소 행동이 일관되고 각건을
 위엄 있게 높이 쓰셨지
 以余無狀 晚獲叨陪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만년에
 모실 수 있었는데
 盛德撫謙 罔窺涓涯 훌륭한 덕으로 겸손하셔서 학
 덕(學德)의 끝을 볼 수 없었네
 源源承候 我疑斯稽 계속 모시는 동안 나의 의심
 모두 해결되었으니
 誰云耄耋 視聽不衰 누가 늙었다고 하는가, 시력과
 청력 건장했거늘
 今歲何歲 龍蛇又來 올해가 어떤 해인가, 용과
 뱀⁶⁸⁾이 또 들어왔네
 去年茲辰 諄諄誨辭 지난 해 이 맘 때에 차근차근
 훈계하시던 말씀이
 今年此日 寂寂素帷 올해 이 날엔 흰 장막 속에 고
 요하네
 嗚乎痛哉 大櫟既摧 아! 슬프다, 큰 들보가 이미 부
 러졌으니

62) 숙재(肅齋) : 조병덕(趙秉惠, 1800-1870)의 호이다. 조병
 덕(정조24-고종7)은 본관 양주(楊州)이고, 자는 유문(儒
 文)이다.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에서 공
 부하였다. 동문의 임헌회(任憲晦)와 함께 한말의 유명한 성
 리학자이다. 이재(李穡), 김원행(金元行)으로 이어지는 학
 맥을 홍직필에게서 이어받아 문하의 김병창(金炳昌) 등에
 게 전수한 인물이다. 저서로 『숙재집』이 있다.
 63) 고산(鼓山) :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의 호이다. 임헌
 회(순조11-고종13)는 본관 풍천(豊川)이다. 호로 전제(全
 齋) 또는 희양재(希陽齋)를 사용하였다. 송치규(宋耜圭),
 홍직필(洪直弼) 등의 문인이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
 어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李珣), 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저서로 『전제집』이 있다.
 64) 미친 파도 속의 지주(砥柱) : 혼란한 속에서도 의연히 지조
 를 지키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주는 황하(黃河)의
 종류에 기둥처럼 버티고 서있는 돌인데, 산이라 하는 경우
 도 있다.

65) 순숙(荀淑)에겐……있고 : 동한(東漢)의 명사로, 순숙의
 여덟 아들이 모두 훌륭한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덕망 있
 는 가문이나 훌륭한 형제를 이에 비유하였다
 66) 큰 과실 먹히지 않고 :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 효사
 (爻辭)에 “큰 과일이 먹히지 않음이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짐을 허물리라[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했
 는데, 정이(程頤)는 “여러 양(陽)이 사라져 이미 다하고 홀
 로 상구 한 효만이 아직 남아 있으니, 큰 과실이 먹힘을 당
 하지 않아 다시 생겨날 이치를 보는 것과 같다. 상구도 변
 하면 순음(純陰)이 되나 양(陽)은 다할 리가 없으니, 위에서
 변하면 아래에서 생겨나 씬을 용납할 틈이 없다. 성인(聖
 人)이 이 이치를 발명하여 양(陽)과 군자의 도(道)가 없을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했다.
 67) 일찍 성균관에 입학 : 서찬규는 1846년(헌종12)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다.
 68) 용과 뱀 : 12지로 용(龍)은 진(辰)이고 뱀은 사(巳)이다.
 여기서는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의 왜란을 가리킨
 다.

長聲大叫 匪哭我私 큰 소리로 통곡함은 사적인 나
 의 감정 때문이 아니네
 後生無祿 天不憐遺 후학들은 복이 없고 하늘은 어
 진이를 남겨 두지 않네
 洞酌敷衽 不憚物非 술잔을 올리고 옷깃을 여미니
 제수가 하찮다 꺼리지 마시고
 尊靈不昧 監斯格斯 존엄한 혼령이 계시다면 굶어
 보시고 이르소서

氣 理가
 氣 氣 主가
 가

■ 고찰

이 제문은 지금까지 문헌적 근거가 확실치 않던 이규준의 기철학⁶⁹⁾ 부분에 대한 학문적 사승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규준 자신이 자신의 학문적 연원에 대하여 기술한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 이규준은 자신 학문의 일단이 퇴계학맥이 아닌 기호학맥에서 연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준은 교남, 즉 영남지역에서의 기호학과 계보를 栗谷 李珥 - 尤庵 宋時烈 - 梅山 洪直弼- 臨齋 徐贊奎와 立軒 韓運聖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서찬규에게 나아가 배웠다고 적고 있다.

徐贊奎는 1825년에 태어나 1905년에 사망한 유학자이다. 서찬규의 본관은 達城이고, 자는 景襄, 호는 臨齋이다. 제문에서 이규준이 ‘우리 선생’이라 칭하기도 하고 자신을 문하생이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규준의 유학은 서찬규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찬규는 梅山 洪直弼의 문인이다. 1864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883년 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다. 이규준이 서찬규를 ‘도사’로 높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경전에 대한 질의와 한말의 사회·정치적 사변으로 인한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찬규가 영남지역 학자들에게 내린 대학과 중용에 대한 질문 ‘大學問目’에 대한 답변으로 이규준이 작성한 『大學問目擬對』가 남아 있다⁷⁰⁾.

69)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2005. pp.10-15.

70) 이규준이 저술한 『大學問目擬對』는 필자가 오래전에 소문학회에서 한글 파일 형태로 전달받았는데 그동안

VI. 결론

『(石谷散稿)』

가 1968

』 1966 “ 『 』 2

』 (1981)

2 『 』 가

『경수삼편』의 일부라고 여겨왔었다. 최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경수삼편』을 확보하여 대조해 본 결과 목판본 『경수삼편』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저서류는 아니더라도 이규준의 또 다른 저작으로 보인다. 소문학회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나 제대로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글을 계기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가
가

참고문헌

셋째, 이 글에 나온 서양문화와 문물에 대한 이규준의 이해와 이규준의 서양의 문화, 문물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을 적은 『포상기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규준의 서양에 대한 태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규준은 자신 학문의 일단이 퇴계학맥이 아닌 기호학맥에서 연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영남지역에서의 기호학과 계보를 栗谷 李珣 - 尤庵 宋時烈 - 梅山 洪直弼 - 臨齋 徐贊奎와 立軒 韓運聖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서찬규에 나아가 배웠다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이규준 기철학의 연원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번역에서 그의 기철학적 연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
氣
理

마지막으로 이규준이 『석곡심서』에서 퇴계의 이기론을 강력히 비판하였는데도 퇴계학맥의 박재헌과 강론과 교류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당시 학계가 당파와 학맥을 달리하더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논문>

1.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2005. pp.3-10, 10-15, 20-22.
2. 채취균. 교남교육회의의 활동 연구. 교육철학. 한국교육철학회. 28집. 2005. pp.89-110.
3. 정관. 교남교육학회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1987. 10집. pp.95-124.

<단행본>

1. 김기옥,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용재, 박경남, 박현국 외 16인 저. 한의학통사. 고양. 2006. pp.400-401.
2.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1. p.645.
3. 이규준 저. 석곡산고(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99. pp.341-426.
4. 시인사 편집부 편, 독립운동가의 서한집. 시인사. 1983. pp.128-129.
[cited 2009 Jun 12]: Available from: URL: http://www.i815.or.kr/media_data/data_chong/48.pdf
5. 김두종 저.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463.
6. 이규준 저. 석곡심서. 영일군. 신문관. 1922. pp.1-2.
7. 이규준 저. 대학원본. 소문학회 제공 한글 과일본. pp.37-53.
8. 이규준 저. 석곡심서. 필사본. pp.2-4.

<기타>

1. 고병희.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28-40.
2. 권오민. 동의보감과 부양의학.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41-50.

3. 강동욱. 강동욱 기자의 경남문화사랑방. 경남일보 [cited 2009 July 12]: Available from URL: <http://kdo.gnnews.co.kr/>
4. 대구지방보훈청[cited 2009 Jun 23]: Available from: URL: <http://www.cafe.naver.com/dgmpva/1446>
5. 한국국학진흥원. 『도산문집』의 해제. 영남사립문집, 유교문화관[cited 2009 July 3]: Available from URL: http://www.ugyo.net/yk/gds/gdsHeje.jsp?B_SUJI_ID=KSAC_M_A03000067&sActnType=haje
6. 한국국학진흥원. 입재선생문집해제, 유교문화관, 유교문화권 목판[cited 2009 July 11]: Available from URL: http://www.ugyo.net/mt/mdt/mkdt_heje.jsp?mdt_code=109&mdt_name_kor=%EC%9E%85%EC%9E%AC%EC%84%A0%EC%83%9D%EB%AC%B8%EC%A7%91&CODE1=03&CODE2=02&CODE3=02&CLSS=3
7. 한국대학신문[cited 2009 Jul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unn.net/News/Print.asp?nsCode=42356>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cited 2009 Jun 13]: Available from URL: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40805>

